

음식물쓰레기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처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시는 24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환경 분야 전문가와 공동주최에 거주하는 시민대표,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전주시가 오는 2021년을 목표로 지역개발 및 인구변화, 기후변화 등 지역여건과 대내외적 환경의 변동성이 전망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추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고 연구내용에 대한 검토 및 향후 활용방안 등 의견을 제시했다.

(사)전북경제연구원은 이번 용역을 토대로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현재보다 약간 증가하거나 증가 추세가 둔화 또는 정체화 하루 평균 245톤에서 247톤으로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전주시민을 직접 만나고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대체로 인식하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품목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발생에 따른 가축질병방역 대책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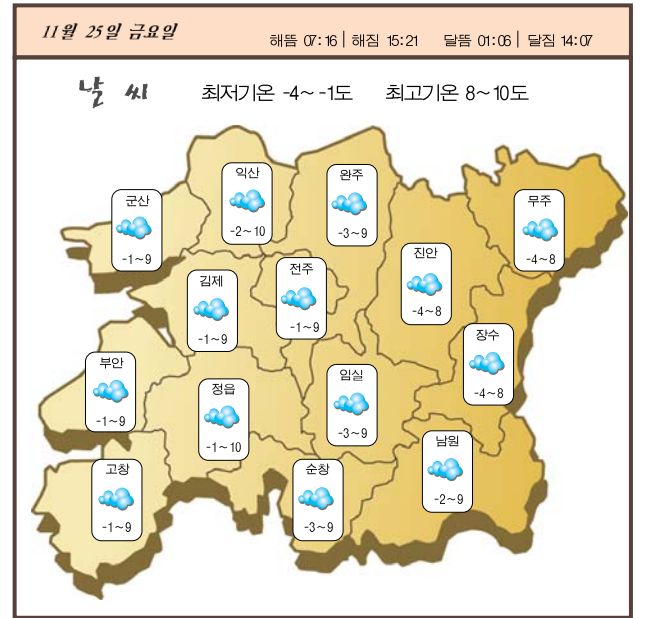
송진진 도지사는 김제시 금구면 소재 육용오리 농가(사육두수 17천수)에서 시 발생 및 전남, 충북, 경기 등에서 고병원성 시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24일 도청 가축질병방역상황실에서 관련 실무장과 방역대책회의를 갖고 실국별 유기적 협조체계 운영 및 인체감염 예방대책 추진 등을 당부하였다.

안재일 전북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후에도 감량 정책이 미흡하면 수수료 현실화 실시 후 공동주택 등 개별 계약장차 등 사업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수립된 발생억제 목표달성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처리에 대한 기본방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전주시 실정에 맞게 현재와 미래비전을 제시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토대로 음식물 감량 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원과 교원 대상 내년 2월 명예퇴직신청 받는다

신청기간내달 12일부터3일간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과 교원을 대상으로 내년 2월말 시행예정인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3일간이다.

명퇴 신청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소속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받은 뒤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은 내

년 2월말 기준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이며, 정년퇴직일 1년 이상 기간 중에 자진해 퇴직을 희망하는 교육공무원과 교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신청자 중 징계이결 징계처분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이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또는 비위조사 중인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닥종이 인형, 프랑스 파리 7대학에 전시

한지 인형 통해 한국의 세계기록문화유산 위상·한지공예 창의성 유럽에 소개

전주한지에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담은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재현 닥종이인형'이 프랑스에서 전시된다.

24일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 22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주간 프랑스 파리 7대학에서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닥종이 인형을 전시한다.

소개되는 작품은 145년 만에 프랑스로부터 반환(대여)된 조선시대 외규장각 의궤 중 가장 화려한 영조정순왕후 가례 반차도 행렬을 한지공예로 재현한 것으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루브르 박물관 카르넬랑에서 열린 프랑스 국제문화 유산 박람회 전시회에 이어 파리에서 열리는 두 번째 전시회다.

의궤는 조선시대 국가나 왕실의 중요한 의식과 행사를 개최 한 후 전 과정을 기록한 종합보고서로, 외규장각 의궤는 지난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에서 약탈해 보관하다가 재물 서지화자인 허백선 박사(1928~2011)의 노력으로 반환운동이 시작돼 지난 2011년 의궤 297책이 우리나라에 돌아왔다.

특히 작품이 전시되는 프랑스 파리 7대학은 허백선 교수가 박사학위를 받은 곳이자 지난 2011년 벨상 베르제 파리 7 대학 총장이 한민족의 일이 뛰어난 도시인 조선의궤의 자리는 서울이라고 말하며 프랑스 지식인들과 외규장각에서 반환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인연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크다. '역사(歷史) 공예(工藝)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66세의 영조가 15세의 정순왕후를 계비로 맞이하는 혼례인 영조정순왕후 가례 반차도 행렬을 한지조형 안미영 작가가 긴 작업기간의 회화애락을 담아 한지 인형으로 재현한 작품들이 소개됐다.

한지 인형을 통해 조선왕실문화의 엄숙함과 웅장함, 화려함 등 조선왕실 문화의 우수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세계기록문화유산의 위상과 한지공예의 창의성과 아름다움이 유럽에 소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지산업지원센터는 현재까지 닥종이 468평과 말 7필, 가마 2기, 기타

의장류 576여점 등 영조정순왕후 가례 반차도 행렬 50면 중 14면을 제작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제작된 전체 콘텐츠의 약 30%가 전시된다.

안미영 작가는 컨퍼런스에서 허백선 교수의 의궤가 임대로 귀한도 아닌 반환이길 바란다라는 유언을 언급하며 "백선선 교수의 정신이 들어 있는 파리 7대학에서 전시하게 되어 기쁘다"며 "의궤 중 나머지 3분의 2에 대한 작업도 끝까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외규장각 의궤가 프랑스 반환 이후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의궤에 대한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하여 한국 문화의 우수성 조명 및 산업적 교육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재기자

도교육청, '학원 설립·운영·과외교습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

학원 교습비·반화기준 내·외부에 게시해야

내년부터는 학원의 교습비와 교습비 반환기준을 학원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도내 모든 학원은 내년 1월1일부터 교습비와 교습비 반환기준을 학습자가 보기 쉽도록 학원 내부와 외부에 명확히 구분해 게시해야 한다.

외부 게시 장소는 ▲주 출입문 주

변, ▲건물 주 출입구 주변, ▲육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부 공간 중

에서 자율로 정할 수 있다.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경고에 이어 2차 교습 정지되며, 3차례 위반 땀 등록말소·폐지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반환 기준은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교습 시작 후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정치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

정치후원금이란? 정당 및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탁금과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에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후원금이란?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치후원금센터를 검색하세요

결제방법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복합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결제

간편 결제
Kakao Pay
PAYCO
Paynow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하기

정치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

깨끗한 정치문화 만들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10만원 초과

전액 세액공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1천억원